

“살려달라” 시장에 던진 상인들의 하소연

국밥집 등 잇단 확진에 2단계 완화에도 손님 ‘뚝’ 주차장도 썰렁 ‘코로나 음성’ 목에 걸고 손님맞이 상인들 하소연에 이용섭시장 “지원책 강구하겠다”

“시장님, 우리 시장(市場) 좀 살려주세요”

14일 오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을 찾은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쏟아진 시장 상인들의 절절한 하소연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소위 2.5 단계)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지 서너 시간이 지났지만 상인들의 입술은 바짝 탔다.

추석 특수를 앞두고 물량 확보가 한창이던 지난달 27일 내려진 준 3단계는 시장 상인들에겐 무거운 족쇄였고, 시장 밥집과 순대국밥집, 인근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상인들은 멘붕에 빠졌다.

손 쓸 틈도 없이 ‘코로나 낙인’이 찍혔고, 손님은 하루 아침에 뚝 끊겼다.

이대로 주저 앉아 있을 수 만은 없다며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라는 ‘목걸이 안내문’까지 목에 걸고, 파라솔에 내걸며 손님을 기다렸지만 감염병 공포 앞엔 ‘백약이 무효’였다.

그렇게 18일이 지났고, 사흘 연속 지역 감염자가 5명 이내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면서 이날 비로소 준 3단계 빨간불은 2단계의 황색등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시장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했고, 안타까운 현실을 전해 들은 시장(市長)은 직접 현장을 찾았고, 그런 그에게 상인들은 하소연을 토해냈다.

한 상인은 “최근 시장밥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전체에 상상도 못한 여파가 미쳐 방문객이 급감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말바우시장에서는 그동안 밥집과 순대국밥집, 인근 사우나 관련 확진자가 30여 명이나 쏟아져 나오면서 상당수 가게들이 개점 휴업에 놓여야만 했다.

또 다른 상인은 “날마다 날마다 소독과 발열 체크를 철저히 하고 있고



14일 오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한 가게의 상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의 내용이 적힌 ‘목걸이 안내문’이 걸고 장사를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한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이틀간 폐쇄됐다.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상인들만 장사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방문해 달라”며 “(말바우)시장을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 시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찰을 착용하고, 마스크에다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장사를 재개했음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손을 잡고 위로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8차 민생안정 대책에 이어 앞으로도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시장을 찾은 시의회 의장, 북구청장, 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도 상인들의 호소에 “침체된 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정승호기자

코로나19로 일감 끊긴 일용직 노동자, 차량 절도 입건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가 차내 보관 중인 금품을 털려다 차량까지 훔쳐 몰아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 차량을 훔쳐 탄 혐의(절도)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광주 북구 임동 한 신축아파트 공사장 주변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2km가량을 몬 혐의다.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자 차털이를 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차주는 주차 차량 안에 스마트키를 보관해왔으며, A씨는 별다른 금품은 훔치지 않고 훔친 차량을 몰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영상을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전남 지역 한 병원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면허 취소 3개월 만에 또’ 상습 음주운전 50대 입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50대가 3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5일 면허 없이 만취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55분께 광주 남구 구동 광주공원에서 동구 수기동 한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 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재취득은 내년 6월부터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6월9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148조의 2항에 따라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가도로 구조물 충돌 뒤 SUV 전도...만취 운전자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만취 운전을 하다 단독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동운고가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도로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다.

사고 직후 차량은 왼쪽으로 넘어졌으나, A씨는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술 취해 남성 택시기사에 뽀뽀한 40대 감형

술에 취한 상태로 남성 택시기사에게 입맞춘 여성 A(48)씨가 항소심 끝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후 목적지 인근에 도착해 남성(30) 기사 입술에 입맞췄다.

A씨는 재판 중에 “입술에 손을 대고 입맞추려는 시늉을 했을 뿐 기사와의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이태영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세부적이며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라며 “택시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에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라며 항소했다.

이에 지난 9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목 부장판사)는 “증거를 살펴 본 결과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며 비교적 가볍다”라며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광주 코로나19 확산세 안정 ‘기로’...방역 준수가 관건

‘유증상자 늘장 검사’ 잇따라...“방역 동참 부탁”



광주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주일 가까이 하루 확진자가 한자리 수에 머물러 확산세가 안정 국면의 기로에 놓여 있다.

당국은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감염 확산 억제의 관건으로 꼽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을 제

차 강조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광주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한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8일 17명을 정점으로 크게 꺾이는 분위기다.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9시간 신

규 확진자가 한자리 수를 기록했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는 9일 5명, 10일 8명, 11일 3명, 12일 3명, 13일 3명, 14일 1명 등이다. 이날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도 오후 2시 기준 1명에 그치고 있다.

새로운 집단감염원이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일주일째 일일 신규 확진자 한자리 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 방역당국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전날 정오를 기해 ‘준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다.

다만 일부 확진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추가 감염의 ‘불씨’는 여전히 있다.

한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일반 병원을 4차례나 방문하는 등 열흘간 일상생활을 하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다른 확진자들도 증상 발현 직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고, 개인 진료만 받다가 7~8일 늦게 확진됐다. 증상이 나타난 뒤 11일이 지나고 나서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도 있었다.

뒤늦게 감염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간접 접촉자 규모도 크게 늘었다.

이처럼 기본 방역수칙을 소홀히 할 경우 또다른 감염 확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시 방역당국은 우려를 표했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장은 “시민·소상공인의 협조로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완전히 억제됐다고 보기 어렵다. 1~2주가량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감염 위험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0일까지 유지되는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